

# 게리 예이츠 박사, 성서 12장, 세션 18, 요나서 1-4장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12장에 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18강, 요나서 1-4장입니다.

요나서에 대한 토론을 다룬 마지막 비디오에서는 요나서의 구조와 요나서의 주요 주제를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1장과 2장이 3장과 4장의 내용을 반영하고 1장과 3장, 2장과 4장이 서로를 반영하는 패널 구조를 가진 책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1장과 3장에는 요나가 이방인들과 교류한 이야기가 있고, 2장과 4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자신의 구원을 축하하고 나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니네베 사람들의 구원. 이제 책과 개별 장을 통해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장부터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하면서 배에 있는 선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쳐 부르짖으라 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구약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 예언적 부르심 이야기에서 그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부르심에 항의합니다.

개인적으로 무가치하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나에게 화가 있도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더러워졌으니 말할 자격도 없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는 어려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네 입에 넣어 주겠다. 모세는 자신이 유창한 연설가가 아니라고 거듭 항의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무가치한 반응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력 있게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하나님, 당신은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더 잘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응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을 행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특히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미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후에,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건축을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니느웨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런 다음 반복하여 요나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려고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시자 그가 일어나 올라갑니다. 그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은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치려 할 때 배에 탄 이교도 선원들과의 상호 작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호 작용에서 보게 될 것은 제 생각에 요나가 자신이 상호 작용하는 이교도들, 즉 1장의 선원이든 3장의 니느웨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아이러니와 풍자는 선원들이건 니네베 사람들이건 간에 이교도들이 선지자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잘 적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선지자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훨씬 더 개방적이고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1장에서 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정통 신자인데, 9절에서 이에 대한 신학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선원들과 이야기하고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과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이 부분은 요나서에서 요나가 신학적으로 정통적인 내용을 말하는 세 부분 중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행동과 행실을 볼 때,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확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땅과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는 창조자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쳐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칠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가 신학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통적인 것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와 선원들의 비교에서 요나는 일종의 패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결국 보게 되는 것은 요나와 선원들을 상상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장난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밤에 지나가는 배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이유는 그들이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결국 선원들은 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요나와 대조적으로 선원들의 영적인 민감성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은 주님께서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실 때 선원들이 이에 즉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기 시작한 일은 그들의 다양한 신들에게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호와께서 바다에 바람을 내리실 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요나는 배 안쪽 구석진 곳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나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 요나는 자고 있고 이교도 선원들은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여기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에 민감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요나의 움직임과 움직임. 여기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며 그 개념과 함께 요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 언급되었지만 여기서는 요나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내려가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 야라드 . 1장에서는 이 내용이 세 번 반복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그의 삶에 하강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내리는 하강은 단지 옹바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배를 타고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음부 곧 죽음을 향하고, 스올을 향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의 여행은 궁극적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옹바로 내려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금을 지불하고 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yarad가 두 번 언급되었습니다. 5절,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던졌느니라.

배 안쪽으로 내려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는 것처럼 옹바와 다시스의 지리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하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십시오.

야랏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요나의 삶에는 하강이 있습니다. 그는 배 밖으로 던져지자 물 속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데려갈 하산길이 다시스보다 훨씬 더 먼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구약의 사상 세계에서는 지하 세계 자체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2장의 기도에서 요나는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이 바다 깊은 산 밑으로 내려가서 갇히게 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 돌아올 수 없는 곳인 스올 의 빗장에서 . 그는 6절이나 5절에서 깊음이 나를 둘러쌌으며 해초가 산뿌리에서 내 머리를 감쌌다고 말합니다.

땅으로 내려 갔습니다 . 그래서 요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자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도망치거나 그것에 저항하면 죄의 삶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스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죽음과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요나의 삶에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매우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고 있는 방향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음, 단어 반복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는 선원들이 향하는 반대 방향을 보여주는 이야기에서 1장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원들에 대해 생각할 때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두려워한다는 동사인 yarad 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움은 이 이야기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돌을 내 리사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시니 큰 폭풍이 일느니라. 그리고 선원들, 지중해에 여러 번 가본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선원들은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폭풍입니다. 사실, 4장에서는 배 자체가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문자 그대로 말하면 배 자체는 부서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배 자체를 의인화합니다.

그리고 배는 폭풍우의 크기를 보고 '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배 자체가 두렵다면 선원들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요나가 얼마나 둔하고 무감각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그 움푹 들어간 곳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이야기에 도입됩니다. 배는 부서질까 봐 두려워요.

그러자 선원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그들은 두려움이 이것이 표현되는 방식이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때 공포의 대상은 폭풍우와 그들의 죽음 가능성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일, 그들이 숭배했던 신들에게 부르짖는 일을 하도록 이끈다. 1장 10절에서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사용되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히브리 사람임을 인정하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경외합니다. 그 때 선원들이 몹시 두려워했다고 알려 줍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대상에 변화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들이 부르짖던 모든 신들과 다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히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요? 그 사람들은 그가 주님의 면전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들이 단지 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 두려워합니다.

마침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때가 이르매 바다의 뛰노는 것이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과 폭풍이 저절로 그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신 것을 깨닫고 깨달으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심히 경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습니다. 그들은 그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을 참되게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폭풍에 대한 두려움에서 공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것이 경건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과 정반대입니다. 그는 참하느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에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이야기에서 요나가 이 선원들과 상호 작용할 때 그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선원들입니다.

그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요나의 역할과 사명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3절에서 그가 그 부르심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대한 저항은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요나가 모세나 사무엘, 예레미야처럼 이 사람들을 위해 중재하고 기도하겠다고 제안한 곳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폭풍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시 설명하지도 않고, 그들이 믿도록 부르지도 않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요나는 배에 탄 후에도, 폭풍이 닥친 후에도 선지자의 부름을 거부합니다. 6절에 보면 배의 선장은 요나를 불러 이르되 보라 요나야 일어나 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요나는 자신의 예언적 사명을 거부했고, 선장이 직접 이 일을 할 때에도 요나는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마침내 주님께 대해 이야기하거나 어둠 속에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달랠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 이 이교도 선원들에게 마침내 설명하려고 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요나가 말하는 유일한 때는 룿이 마침내 폭풍의 책임이 있는 사람임을 지적했을 때입니다.

이교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제비를 뽑는 이교도 의식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고, 결국 요나는 이에 대한 결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이 책에서 매우 꺼리는 선지자이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요나가 반선지자로서 상상될 수 있는 풍자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어나 가라. 그들은 엘리야가 했던 일을 합니다.

그들은 일어나고 간다. 참 선지자는 재난이 닥칠 때와 재난이 닥칠 때 백성에게 경고하고 교훈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닥칠 재난을 피하거나 피하거나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요나는 그것에 저항합니다. 요나는 이교도 니네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지 않았고 이교도 선원들에게도 전파하는 것을 크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예언적 사명에 대해 그가 저항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선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기에 너무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달래겠습니까?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폭풍우가 더 이상 당신을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가 당신을 위해 조용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요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입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할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든 달래야 할 화산의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나는 요나가 그들의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예언적 사명을 수행하기보다는 선원들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편을 택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에게 참 하나님에 대해 더욱 가르치거나, 아니면 궁극적으로 니스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맨 처음부터 요나는 반선지자로 묘사됩니다. 괜찮은.



12장에 비추어 요나서를 살펴보면 여기서 문제 중 하나는 이 책이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고 12서는 사람들이 요나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강조하려고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다시 한 번,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신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책망을 듣습니다. 이는 12장 전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선원들은 요나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2장에서 사공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열려 있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찰은. 요나의 선원들 사이의 대조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원들 사이의 대조와 그들이 선지자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선지자에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선원들은 그들 앞에 최악의 예언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 대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응답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대조되는 점은 이스라엘에는 12장의 역사 전체에 걸쳐 그들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 선지자들이 수백 년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시리아의 위기, 바벨론의 위기, 포로기 이후에 회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찰은. 또한 우리가 요나에 대한 반선지자 개념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요나서와 예레미야서 사이에 특정한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사명을 수행한다.

이러한 상호텍스트적 연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정확하게 행한 예레미야의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충실한 선지자였으며 온갖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우리의 대선지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를 원하지 않는 요나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응답하기 위해 선원들이 알아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 요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선원들은 믿고 이스라엘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특별한 이야기와 이야기에서 선지자 자신의 일을 실제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특히 요나 1장과 예레미야 26장 사이에는 흥미로운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 선지자로서의 개념 과 예레미야와 요나의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 간단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가서 전파하며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혹시 그들이 듣고 각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까 하노라. 예레미야야, 나는 당신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르신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가서 이 사람들에게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꺼리실 가능성을 제기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선원들입니다. 요나가 배 안에서 자고 있을 때 선장이 그에게 와서 “요나야, 일어나 기도하고 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설교할 때 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선원은 요나에게 와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해야 합니다.

들이 행한 라아(raah) 에 대해 백성들과 대면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했고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지자가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요나 1장의 선원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와서 등불을 켜서 이 라아,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자 하더라.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경솔함, 악함 때문에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 라아 의 근원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악을 행했고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선원들입니다. 이것은 26장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원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기만 하면 바다가 여러분을 위해 잠잠해질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선원들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쉬운 방법처럼 보일지라도,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 제안을 한다면 우리는 이교도 선원들이 단순히 그를 붙잡아 배 밖으로 던질 것이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이를 거부한다.

그들은 몸부림치며 마른 땅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노를 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른 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선지자를 바다 밖으로 던져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선지자가 우리에게 명한 대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선원들은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죄한 피를 우리 자신에게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성전을 헐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파했을 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 이 사람은 죽어야 해요.

좋아요? 이 거짓 신들을 믿는 선원들과 이교도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6장, 성전에 모인 사람들, 여호와를 알아야 할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대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예레미야는 "알겠습니다. 관찮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선하고 옳은 대로 나에게 행하소서.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는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것만 확실히 알아 두라.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거나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꼼직한 선지자와 놀라운 대조를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능한 한 적게 이야기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선지자의 일을 하며, 악의 근원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누그러뜨릴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들은 이교도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응답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거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기를 원했고, 궁극적으로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하려는 일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나는 요나서와 예레미야서의 대조를 강조하기 위해 예레미야 26장과 요나 1장 사이에 상호텍스트적 연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과 배에 탄 선원들의 반응 사이의 대조도 있습니다. 1장, 요나가 선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일어날 두 번째 요소를 기억하세요. 두 번째 패널의 B 요소는 이제 요나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요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1장의 끝에서, 요나가 배 밖으로 던져진 후, 그의 생명이 본질적으로 끝난 후에는 이 상황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함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일의 결과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심으로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임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주셨고,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로운 구원 행위, 즉 하나님께서 그를 삼키고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물고기를 주신 이 기적적인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것은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내 말은,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 시편은 기도서에 들어갈 수도 있었던 감사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이 시편은 시편에서 우리를 위해 제시된 이러한 유형의 노래들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 감사 시편입니다. 감사 시편은 한 사람 또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나 하나님께서 그 개인이나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구체적인 구원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특별한 형태의 예배였습니다. 사람들.

시편 30장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나아와 이르시되 내가 죽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도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고쳐 주십니다.

시편 30편은 그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응답으로 기도한 시편을 반영합니다. 시편 40편에는 주님께서 시편 기자를 일으켜 생명의 위기에 처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감사 축제에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과 서원의 고통이 포함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탄식할 때,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켜질 뻔한 것처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자주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들은 그를 칭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성소에 가서 제 서원을 갚고, 제사를 드리며,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존경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원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은 예배자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분께 서원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이 감사 행사의 일부에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개인의 관계를 반영하는 감사 제물, 즉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희생제사에서 일어날 일은 그것의

일부는 주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일부는 예배자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희생의 독특한 측면 중 하나였습니다. 이 감사의 축제 가운데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은 이웃, 친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 식사를 하며 축하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일어섰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로 감사의 노래를 바쳤습니다. 요나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 성전에 가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고 예배자가 해야 할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시편 66편에서 이것을 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찬양의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네 집에 들어가리라.

나는 당신에게 내 서약을 이행할 것입니다. 내 입술이 말한 것,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약속한 그것을 내가 숫양의 연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리이다. 내가 수송아지와 숫양과 황소와 염소로 제사를 드리겠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희생을 드리고,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셨는지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요나는 2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는 모범적인 예배자입니다. 그는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과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생명을 15년이나 더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낮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것에 응답하여 감사의 시를 읊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여기서 매우 정통적인 숭배자입니다.

요나는 감사 기도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해초가 그의 머리를 감고 산뿌리까지 내려가 여기에서 익사하여 그를 스올의 영역으로 데려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요나는 곧 지하세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가 말하는 것은 음부의 땅, 스올의 땅, 그 창살이 나를 영원히 닫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 요나는 바다 밑바닥의 모래톱이 그를 영원히 스올에 가둘 빗장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요나가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때때로 요나서 2장에서 그 개념을 반영하는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는 단지 시편 기자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시편에서 자주 보는 방식으로 스올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스올의 권세가 그들을 둘러싸기 시작하고 생명의 활력과 모든 것이 사라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손을 내밀어 요나를 구해 내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여기 마지막에 감사의 표현인 목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정통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종류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사랑에 대한 소망을 저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제가 방금 경험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기회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참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을 저버린다는 의미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저버린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헛된 우상을 생각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소망을 버리는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내가 갇혔다고 서원한 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1장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매우 정통적인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1장, 나는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요나는 구원이 여호와께 있고 우상에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이돌을 믿지 않는다.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통성 가운데서도 이 기도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를 출처로 분류하거나 원래의 모습을 분석하려는 일부 사람들은 종종 요나 2장이 이야기에 삽입되었으며 원래의 일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서사적 부분에 시적 부분을 삽입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요나에 비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매우 정통적인 요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책의 나머지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핵심은 2장과 4장의 대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책은 원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기도를 그 자체로 분리할 수 있다면 아마도 누군가가 시편에 붙일 것을 제안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 전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기도에는 이것이 표현된 방식에 있어서 정통일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삶에는 여전히 태도와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교 우상 숭배자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교 우상 숭배자들이 요나보다 주님께 훨씬 더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요나가 마침내 니느웨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은 요나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반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기도의 장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고백이고, 훌륭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여기에는 시편 51편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가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편 51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편 51편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인정은 없습니다. 훌륭한 기도지만, 이 특별한 상황에는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두 번째 문제에서 두 번째로 드러나는 점은 요나 측에 잘못된 확신이 있는 것 같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가운데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리이다." 만약 요나가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아마도 적절한 반응은 하나님께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달라고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 요나를 물고기에게 삼키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자신이 여호와와 신실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저넘게 말하는 것입니까?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가 하나님께 응답한 방식을 볼 때, 그의 서원이 정말 진실로 들리나요? 요나의 기도에도 관한 세 번째 문제는 요나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내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나니 이것이 다 필요한 이유니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음이니이다", 그리고 홍수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당신의 모든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언어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재앙을 초래하는 재난의 근원이신 것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요나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나를 깊은 곳으로 던져 넣은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아니요, 요나는 선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나는 이것이 기도와 관련된 세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가 2장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신학적으로 완전히 정확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헛된 우상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신뢰한다면, 당신은 확고한 사랑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 요나와 이교도들과의 상호작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모든 것 뒤에는 오만함과 교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만함과 교만은 2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요나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종류의 은혜를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신 것에 분노합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주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축하하고 이로써 책의 첫 번째 부분이 끝납니다. 책의 3장, 4장,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A 패널 중 두 번째인 요나 3장이 있습니다.

요나가 이교도 집단과 교류하는 과정은 요나서 1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과 유사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1장의 선원들과 3장에서의 니느웨 사람들. 흥미로운 점은 다시금 우리가 이것의 더 깊은 수준으로 계속 지루해한다는 것입니다. 1장과 3장 사이에는 눈에 띄는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여호와와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는 도망치려고 일어섰다. 3장에서는 여호와와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고 이제 다른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이 변하지 않았다고 지시하십니다. 지시 사항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니네베로 가십시오. 그런데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가 도망치려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 요나는 일어나 가서 선지자의 할 일을 행했습니다.

1장에는 재난이 임박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를 깨뜨릴 위험이 있는 폭풍을 보내십니다. 3장 4절에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스웨를 멸하리라 경고하심으로 재앙이 임박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는 임박한 재난에 대한 선원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신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3장 5절에는 임박한 재난에 대한 니스웨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니스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까지 굶은 베틀을 입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배의 선장이 요나에게 “일어나 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혹시 그 분이 혹시 우리를 감찰하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구원받을 가능성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가능성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3장 6절에서 그런 가능성을 제기한 사람은 니스웨 왕입니다.

요나는 40일 안에 너희가 회개하거나 반응하지 않으면 니스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니스웨 왕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선원들처럼 긴급히 하나님께 부르짖자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알아?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니스웨 왕의 언어는 이전에 요엘서 2장의 십이사도서에서 사용되었던 언어와 정확히 같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고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누가 알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회개에 응답하시고 심지어 불변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40일 동안 니스웨가 멸망되거나 전복될 것입니다. 7-15장에서 사공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를 경외하며 제사를 드린 것처럼 니스웨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사 드리는 자리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과 재를 두르고 회개합니다. 심지어 동물도 포함됩니다.

짐승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입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왕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반응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에 관해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즉, 사람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듣고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12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네다섯 가지 예 중 하나가 니스웨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니스웨 사람들이 악을 회개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켜 니스웨성에 대하여 계획하신 재앙을 보내지 아니하신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멸하기만 원하셨다면, 요나가 미리 메시지를 알리지 않고도 그들을 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사실은 항상 회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의 그림자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요나는 그 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니스웨의 회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목할 만합니다. 메시지의 간결함.

히브리어로 요나의 설교는 다섯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가 더 많은 말을 했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를 꺼리는 것을

고려하면 그는 가능한 한 간략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앓수르 사람들은 요나나 야훼와 관련된 이전 역사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놀랍습니다.

응답 타이밍이 놀랍습니다. 즉각적인 것 같습니다. 요나는 사람들이 반응하기 전에 니스웨 성에서 예언적 설교 사명을 완수하지도 못했습니다.

회개의 성격과 정도. 금식입니다. 굶은 배움을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도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니스웨의 회개를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점은 그들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보다 가장 주목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제안한 것처럼, 이 이교도들이 주님을 완전히 알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는 완전하고 진정한 회심이 여기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민감합니다. 그들은 악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에 충분합니다. 다니엘 티머(Daniel Timmer)는 이 장에서 놀라운 도덕적 개혁이 있다고 말하지만, 요나 3장에는 그 이상이라고 말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회개가 완전한 회심이 아닐 때라도, 심지어 회개가 어떤 의미에서는 어-오, 우리 손이 쿠키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때에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에서 방금 하나님께 응답했다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앓수르인들이 궁극적으로 제국주의의 폭력과 적개심의 패턴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알고 계시며, 나훔은 요나가 그곳에 있는 지 150년이 채 안 되어 그들의 멸망을 선포할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앗수르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넓이와 위대함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는 아시리아 사람들 자신이 될 것입니다.

나는 구약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종종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패턴을 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봇에게 지은 죄 때문에 아합 집안의 피를 쏟겠다고 선언하시자 아합은 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아합은 곧 그의 최악된 길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최소한의 반응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기꺼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였습니다. 55년의 악.

역대하 33장은 그의 통치 중 어느 시점에 앗수르 사람들이 와서 그를 족쇄로 묶고 그를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인생에 재난과 위기가 닥치는 이 순간, 므낫세는 종교를 찾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완전하거나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 후에 므낫세가 종교개혁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최악의 경우에 최소한의 회개라도 기꺼이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이 확실히 속기 쉽고 어리석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성서에서는 하느님께서 에스겔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알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에서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다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인 요나서 4장의 마지막 패널로 이동하면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과 상호 작용하는 2장과 같은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대조를 기억하십시오.

2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4장에서 그는 2장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라아 에서 돌아섰다고 말하는 의미에서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재앙을 뜻하지 아니하셨 느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라아 의 마지막 사용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요나에게 큰 악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너무 악해요. 니느웨를 살리는 일은 그에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요나는 그를 죽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 구약전서에는 죽기를 원하거나 죽기를 원했던 선지자들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노갈스키(James Nogalski)는 그러한 구절들에 비하면 예레미야의 죽음 요청은 사소하고, 심술궂고, 유치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욥은 욥기 6장 9절부터 14절에서 욥이 고난 중에 죽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이후 모세는 하나님이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낳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왜 내가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까? 그들은 나에게 반항했습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죽기를 요구했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고 눈이 뽑히고 이 모든 일로 인해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죽기를 요구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겪은 모든 박해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것을 요나와 대조해보세요.

요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죽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일요일 설교에 대한 나의

전형적인 반응이 월요일에 은퇴하고 싶다는 것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보통 그 이유는, 아무도 내 말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내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실제로 들었다고 해서 화를 내는 목사님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요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들을 제공하는 식물과 그 식물을 먹는 벌레, 그리고 육체적인 불편함에 대한 요나의 불만에 대한 실물 교훈이 있습니다. 4장을 읽어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에 대해 심히 악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머리 위에 그들을 드리우고 거기 앉아서 하나님께서 니네베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실지 지켜보고 있을 때 매우 기뻐합니다.

요나의 이기심과 성급함, 유치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을 대조시켜 줍니다. 요나서의 끝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이 책은 성경에서 이 일을 다루는 단 두 권의 책 중 하나입니다.

요나서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개방형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야, 내가 니네베 사람들을 걱정해야 하지 않느냐? 당신은 당신의 편안함과 하룻밤 사이에 자란 식물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개방형 질문은 궁극적으로 이 책의 독자로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의 마음에서 본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관심을 그분과 나누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그 자비와 은혜와 연민을 그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시며 우리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그 점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12장에 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18강, 요나서 1-4장입니다.